

VIP 고객용

08-20(통권 29호)

2008.12.01.

금융빅뱅 인사이트



■ 자본 시장 분석
- 금융위기 해소과정 전망

■ 금융 빅뱅 이슈
-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 본 자료는 주요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 금융 빅뱅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증권사와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증권 : 한동욱 연구위원 (2014-1708, tuksan.han@hdsr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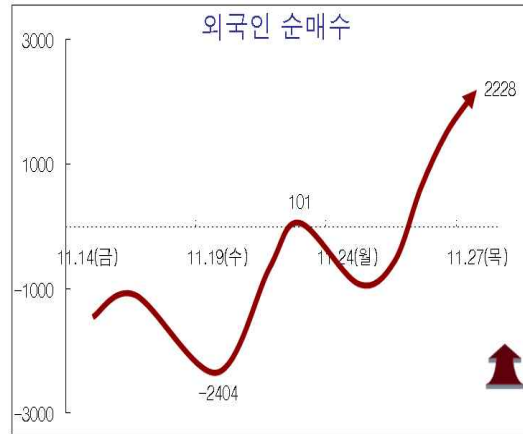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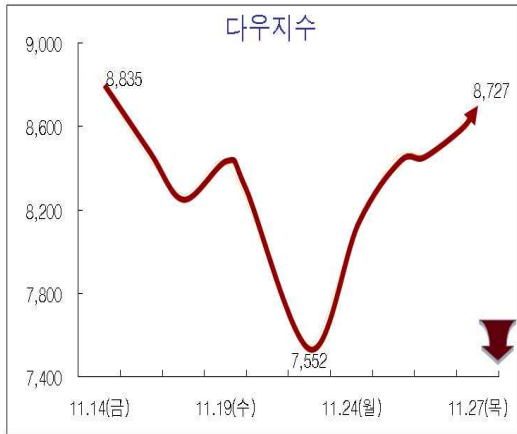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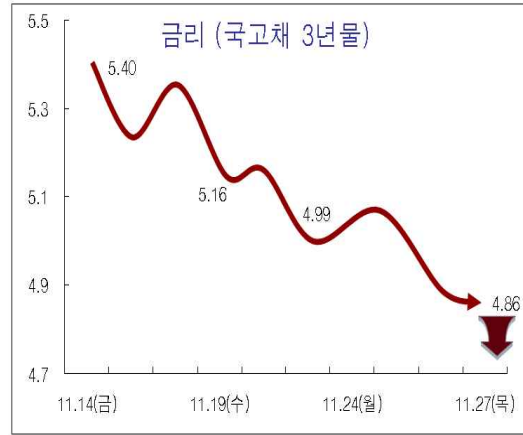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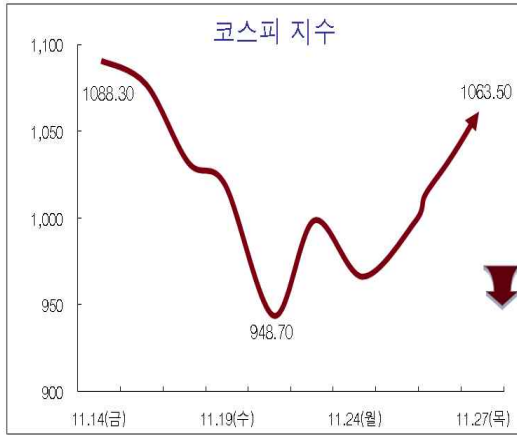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 : 현석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r)

VIP 고객용

금융빅뱅 인사이트

- 자본 시장 분석
 - 금융위기 해소과정 전망
- 금융 빅뱅 이슈
 -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月間 主要 經濟 指標 (11.14 ~ 11.27)



목차

자본 시장 분석

- 금융위기 해소과정 전망 1

금융 빅뱅 이슈

-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9

□ 금융위기 해소과정 전망

1. Resolution Phase 진입

미국 및 서구 선진국의 신용경색 지속과 이머징마켓으로의 전염으로 나타나는 금융 위기 확산은 봉쇄되고, 이제는 ‘금융위기 해소 및 정리단계(Resolution Phase: 이하 ‘위기 해소 과정’)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까지는 신속하고 적합한 정책들이 등장

역사적 금융위기 해소 과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는 신속성과 정책의 적합성에 있어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성공적인 위기 해소 과정의 필요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정책의 영향력에 따라 레버리지 축소의 강도 결정

또한, 2007년 3월부터 본격화된 금융기관 레버리지 축소 압력 중 구조적 요인은 진정되고 있고 경기적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적 요인에 의한 레버리지 축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달려 있다.**

▣ 금융위기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1.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최근 국내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9월말 10.79%로 2008년 6월말 대비 0.57%p 하락하였으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1~9월중 8.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조 원 급감하였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전망도 하향 조정하였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사는 11월 10일 ‘국가’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낮춘 이후, 11일에는 ‘은행 및 제 2금융권’에 대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 금융기관 건전성 결정 요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병존한다.

■ 긍정적 요인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긍정 요인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은행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은행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0.97%로 2003년말 카드 대란 때인 2%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미국 상업은행의 2008년 9월말 연체율인 3.64%에 비하면 매우 낮다. 한편, 국내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 비중도 2003년 카드 대란 때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2008년 9월말 1.33%로 2003년의 2.24%에 비해 약 1%p 낮다. 가계대출의 부실채권 비중도 2008년 9월말 0.53%로 2003년 1.76%보다 낮다. 둘째, **국내은행의 예대율이 양호하다. 금융기관의 원화예수금 대비 대출을 나타내는 예대율은 원화예수금에 CD를 포함해서 2008년 9월말 103.2%로 안정 기준인 100%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미국의 112%와 비교해도 약 10%p 이상 낮게 나타난다. 셋째, **무수익여신 비율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은행의 3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한 무수익여신 비율의 경우 2008년 3월말 0.7%, 6월말 0.6%로, 1998년말 7.4%, 2003년말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반전되고 있어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1/4분기 7억 달러, 2/4분기 2억 달러 유출에서 2008년 3/4분기 16억 달러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은행, 기업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은행 유동성, 중소기업 대출 유동성, PF 대출 건설사 관련 지원, 개인 부채 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들이 수립되었다.

■ 부정적 요인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첫째, 국내 금융기관의 과중한 단기 외화부채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경색으로 일반은행의 단기 외화 차입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중장기 차입이 감소함으로써 달러 부족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외형 확대 위주의 성장이다.** 은행이 고원가성 자금 조달에 의존하여 수익성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대를 위한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이 급속하게 나빠진다. 원화대출금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06년 13.9%, 2007년 14.9%, 2008년 2/4분기에는 16.4%까지 상승한다. 반면, 원화예수금 증가율은 2007년 0.1%, 2008년 2/4분기 5.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리스크의 확대이다.** 은행의 원화대출금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4%에서 2008년 2/4분기말 42.5%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BSI 전망치는 68로 2003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의 경우는 가계부채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악화되었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 저하는 가계의 파산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넷째, 건설업 및 조선업 등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중소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2008년 초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위험 수준에 처해 있다. 또한 조선업종의 경우, 대규모 시설 자금을 은행들이 공급해 왔는데 조선업종에 대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은행의 대출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었다. **다섯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2008년 내내 지속되고 있어 환율 급등과 국내 외화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1월에서 11월 21일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46조 2,62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7년의 27조 2,000억 원보다 19조원 이상 많은 상황이다.

3. 향후 전망과 선제적 대응 과제

금융기관을 둘러싸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향후 건전성 악화 요인 증가

우선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예상된다. IMF는 미국(-0.7%), 일본(-0.2%), 유로

Executive Summary

(-0.5%) 등 선진국 경기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아세안-5 등 주요 개도국 경제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둘째로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진다면 수출입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부실 채권 증가는 BIS 비율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현재까지 안정적인 연체율, 무이자수익여신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 선제적 대응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과제를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첫째, 패스트 트랙 제도와 같이 기존 수립해 놓은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및 가계 부도 증가는 일반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므로 정부 종합 대책에서 수립한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우량 기업으로 분류되면,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한다.**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실시를 지속함으로써 가계 및 중소기업들의 채무 부담감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신용에 의한 대출이 가능한 크레딧뷰로(CB, Credit Bureau)와 같은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요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저축은행 및 가계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저축은행과 부동산 PF관련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하락 유도과 구입 가계들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플랜을 통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은행 자율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기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다섯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철저한 리스크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은행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금융감독기구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금융기관 회계 기준에는 시장 위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산위험 등을 포함시켜 부실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해소과정 전망

○ 기존주주 보호와 민간투자가 유인력이 있는 우선주방식의 정부지분 투입

- 1970년 이래 선진국들의 금융위기 해소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절차와 이번 미국 금융위기의 경우를 비교할 때, 필요한 시기에 비교적 적합한 정책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증시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전환우선주 방식과 신용한도단기대출(Credit Line)을 확대해 우려되던 기존 주주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고, 신규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도록 전개되고 있음
- 위기 해소 과정에 있어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임

○ 구조조정 관장 기구설립과 효율적 운용

- 먼저, 신속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관장할 기구설립과 효율적인 운용임
 - 세부사항으로는 첫째, 추가 부실이나 파산위험이 있는 금융기관 및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자본투입여부와 둘째, 기 투입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투입지분에 대한 관리 여부임
- 미국 재무성은 구제금융법안(TARP)에 의거 이를 관장할 기구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만든 상태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돌입해 있음
- 이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실채권 매입방법 대신에 직접 지분투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안정시켜 레버리지 축소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는 점임
- 역사적으로 금융기관의 기존 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해 부실채권 매입을 비롯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일본의 경우)에 해소 과정의 장기화와 실물경제의 침체 지속을 경험하였음
 - 이는 이번 해소과정에서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사불란한 투입자본 회수 여부

- 둘째, 정부에서 투입한 자본의 회수와 매입 예정인 부실채권의 재매각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인가의 여부임
- 실물경제의 둔화 및 침체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실물 및 금융자산의 디플레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설립한 구조조정 기구에서 실물경제와 기존 금융기관 보유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질서정연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일본의 경우에는 초기에 매입한 부실자산을 상당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정부 매각예정 자산에 대한 Overhang 위험을 부각시켜 금융기관 자산가치 회복이 지연되고 가계는 재정적자에 따른 향후 세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소비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음

1970년이래 주요 선진국 금융위기 해소과정 비교

(단위: 개, %)

| 금융위기 Resoution(=해소 및 정리) 과정 | 핀란드 | 일본 | 한국 | 노르웨이 | 스웨덴 | 미국 |
|-----------------------------|--------|---------|--------|---------|--------|---------|
| 발생시기 | 91년 9월 | 97년 11월 | 97년 8월 | 91년 10월 | 91년 9월 | 07년 8월 |
| 통화 위기 발생 여부 및 시기 | No | No | 98년 발생 | No | 92년 발생 | No |
| 지불유예 및 기존 규제 완화 여부 | Yes | Yes | Yes | Yes | No | No |
| 정부 대규모 개입 여부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폐쇄 금융기관 수 | 0 | 0 | 9 | 1 | 0 | |
| 발생시점에 정부개입 금융기관 수 | 519 | | 59 | 164 | 118 | |
| 발생후 3년 동안 정부개입 금융기관 수 | 347 | | 31 | 153 | 103 | |
| 은행 폐쇄 여부 | No | No | Yes | Yes | No | No |
| 위기발생시부터 3년 간 폐쇄된 은행 수 | 0 | 0 | 22 | 2 | 0 | N |
| 기타 금융기관 폐쇄 여부 | No | Yes | Yes | No | | Yes |
| 은행주주들의 손해 여부 | No | Yes | Yes | Yes | No | No |
| 국유화 여부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금융기관간 합병 여부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기존 은행주주들의 신규자본 투입 여부 | No | Yes | Yes | Yes | | Yes |
| 해외 매각 여부 | | Yes | Yes | | | Yes |
| 위기발생시부터 5년간 해외에 매각된 은행수 | | 1 | 8 | | | 1 |
| 은행 구조조정 기관 설립 여부 | Yes | Yes | Yes | Yes | Yes | 준비 중 |
| 부실자산관리회사 설립 여부 | Yes | Yes | Yes | No | Yes | 준비 중 |
| 재자본화(Recapitalization) 여부 | | | | | | |
| 재자본화(Recapitalization) 방법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현금 | | | Yes | | | |
| 정부채권 | | | Yes | | | |
| 후순위채 | Yes | Yes | Yes | Yes | | |
| 우선주 | Yes | Yes | Yes | Yes | | Yes |
| 부실대출 매입 | | Yes | | | | |
| 신용한도대출(credit line) | | | | | | Yes |
| 은행 채무 인수 | | | | | | |
| 보통주 | Yes | | | Yes | Yes | |
| 재자본화 총비용 (GDP 대비 %) | 8.6 | 6.6 | 19.3 | 2.6 | 1.9 | |
| 투입자본 회수 여부 | Yes | Yes | Yes | Yes | Yes | |
| 위기발생 후 5년 간 회복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 | 1.7 | 0.1 | 3.5 | 2.0 | 0.4 | |
| 재자본화 순비용 (GDP 대비 %) | 6.9 | 6.5 | 15.8 | 0.6 | 1.5 | |
| 위기발생시점의 예금보장한도(단위: 각국통화) | 전액 | 전액 | 2 천만원 | 전액 | 0 | 100,000 |

자료 : IMF WP/08/224, 'Systemic Banking Crisis', Luc Laeven and Fabian Valencia.

금융위기 해소과정 전망

○ 스웨덴 성공사례를 따라가는 미국과 유럽 거시정책 추이

- 이번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미국 및 서구 선진국 정책당국의 대처과정을 볼 때, 가장 성공적인 극복사례로 꼽히는 91년 스웨덴 금융위기 해소과정을 떠올리게 됨
- 앞으로 거시경제 정책이 현 기조를 유지하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 악재로 정책적 효과가 미약해지는 일이 없다면, 앞 절에서 논의한 2분기 경기저점 형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선진국 금융위기 5차례(한국 포함)를 볼 때, 위기발생 후 3년간 통화팽창과 재정확대 국면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름
 - 일본과 노르웨이는 거시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경기부양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고, 한국은 IMF 정책권고를 받아들여 고금리와 고환율 정책을 도입했었음
 - 한편, 스웨덴의 경우는 3년간 평균적으로 본원통화 증가율 22%, 재정수지 -7%의 적극적 개입을 단행했음
 - 이후 3년간 총 생산량이 30%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위기 발생 후 5년까지 투입된 재정비용의 대부분이 회수되었음

1970년 이래 선진국 금융위기 해소과정 중 거시경제 정책 및 경제적 손실 비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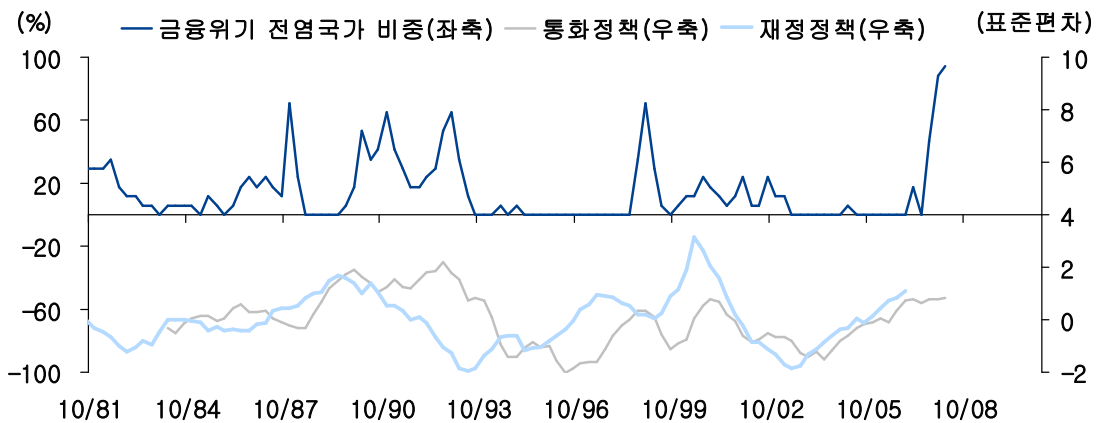
| 거시경제 정책과 재정 및 경제비용 | 핀란드 | 일본 | 한국 | 노르웨이 | 스웨덴 | 미국 |
|---------------------------------|--------|---------|--------|---------|--------|--------|
| 발생시기 | 91년 9월 | 97년 11월 | 97년 8월 | 91년 10월 | 91년 9월 | 07년 8월 |
| 통화 위기 발생 여부 및 시기 | No | No | 98년발생 | No | 92년 발생 | No |
| 거시경제 정책 | | | | | | |
| 통화팽창/축소 여부(팽창 +1, 수축 -1, 중립 0) | -1 | 0 | -1 | 0 | 1 | |
| 위기발생 후 3년간 본원통화의 평균 증감(%) | 1.8 | 8.9 | 4.1 | 5.6 | 21.6 | |
| 재정확대/축소 여부 (팽창 +1, 수축 -1, 중립 0) | 1 | 1 | 1 | 0 | 1 | |
| 위기발생 후 3년간 평균 재정수지(%) | -5.1 | -6.2 | -1.7 | -0.7 | -7.3 | |
| IMF 구제금융 여부 | No | No | 구제금융 | No | No | |
| 경제적 손실과 금전적 손실 여부 | | | | | | |
| 순 재정비용(GDP 대비 %) | 11.1 | 13.9 | 23.2 | 0.6 | 0.2 | |
| 총비용 | 12.8 | 14.0 | 31.2 | 2.7 | 3.6 | |
| 위기발생 후 5년간 회수된 비중 | 1.7 | 0.1 | 8.0 | 2.1 | 3.4 | |
| 산출량 손실(Output Loss, %) | | | | | | |
| 위기발생 후 3년간 산출량 손실 | 59.1 | 17.6 | 50.1 | N/A | 30.6 | |

자료: IMF WP/08/224, 'Systemic Banking Crisis', Luc Laeven and Fabian Valencia.

○ 정책대응에서도 글로벌 공조 필요

-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출발하였으나 서구선진국 뿐만 아니라 이머징마켓 금융시장 전반이 스트레스 상태를 경험하고 있고 실물경제 둔화세가 동반되고 있음
- 어느 한 국가만의 신속하고 적합한 정책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통화팽창/재정확대의 공조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 → 경기부양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글로벌 공조 필요



자료 : IMF, 현대증권.

참고 : 1) 전염국가 비중: 진원지에서 위기가 확산되어 금융스트레스를 경험한 국가의 비중.

2) 통화정책: 추세 제거한 금리의 기간스프레드 편차 추이,

3) 재정정책: 추세제거한 정부의 순대출 편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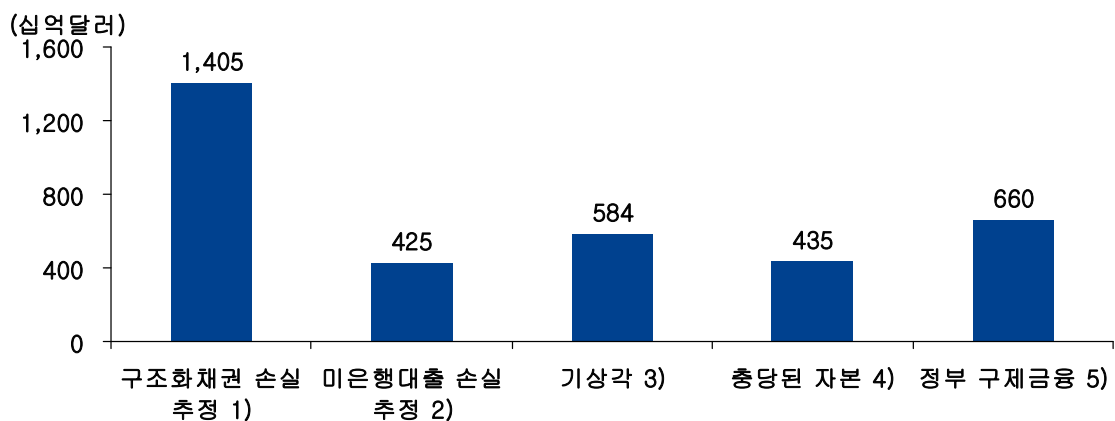
○ 구조적 축소요인 마무리와 경기적 요인 지속

- 구조적 요인에 의한 레버리지 축소는 마무리되고 있고, 경기적 요인에 의한 축소과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즉,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때문에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자본 투입 규모와 속도가 지지부진했음
- 그러나 지난 10월 중 미국 및 서구 선진국 정책당국의 대규모 자본투입으로 총손실 추정금액의 60%에 육박하는 재자본화가 이루어졌음
 - 앞으로도 정책당국의 의지로 판단하건대 추가적인 자본투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가계보유 순자산 감소와 기업의 신용도 하락 등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금융기관 레버리지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9월 이후 미,유럽 정부의 금융기관 지분 직접 매입으로 자본충당 막바지 국면

- 2008년 10월 중 미국 및 주요 선진국 정부의 금융기관 지분 인수를 위한 직접적 재정투입으로 손실금액의 60%에 달하는 자본이 충당되었음
 -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손실추정액과 충당 신규자본을 고려해본 결과, 구조적 요인에 의한 금융기관 추가적인 레버리지축소는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10월 IMF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는 1.4조 달러로 추정되고, 대출자산에 대한 추가 상각 추정액이 4,250억 달러 즉, 총 손실 예상 금액은 1.8조 달러에 달함
- 한편, 충당된 신규자본은 4,350억 달러, 그리고 최근 서구선진국 정부가 투입한 규모가 6,600억 달러로 손실액대비 충당된 신규자본이 60%(10조 달러/18조 달러)에 이른다.
 -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되면, 정책당국의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예상됨

금융위기 손실규모와 상각, 충당 여부 요약



자료 : IMF, WSJ, 현대증권.

참고 : 1) 구조화채권 손실추정: 글로벌 금융기관의 신용전반에 관련된 추정액.

2) 미은행 대출 손실 추정: 주요 선진국 상업은행 대출 추가 상각 추정액.

3) 기상각: 2009년 9월 말 현재 미 금융기관의 확정된 손실액.

4) 충당된 자본: 2009년 9월 말 현재 금융기관에 충당된 신규 자본액.

5) 10월 중 서구선진국(미국:2,500억 달러, 영국+유럽 주요국: 4,100억 달러)의 정부 재정 투입으로 충당된 자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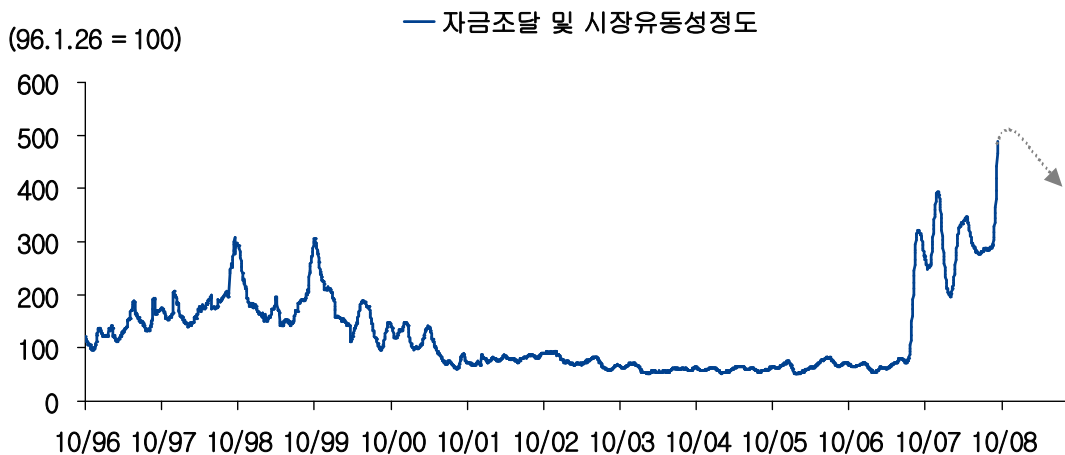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 침체로 경기적 레버리지 축소 요인 잔존

- 지난 9~10월 중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타격으로 인하여 가계 및 기업부문의 신용도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금융기관 레버리지 축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 즉, 10월말을 기점으로 선진국 및 이머징마켓의 유동성 경색은 글로벌 정책당국 사이의 공조를 통해 극단적인 상태에서 완화되고 있지만, 실물경제 침체에 의한 신용사이클의 하락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 자금시장 유동성 경색 개선 중이나 투자가의 위험회피 심리 회복은 시간 필요

- 2008년 10월 말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마켓 주요국에 대한 미 Fed의 통화스왑 체결이 마침내 이루어지며 금융위기 확산의 주범인 자금시장 유동성경색은 급반전을 기대하는 국면으로 바뀌었음
 - 그러나, 실물경제 침체 지속과 이에 따른 기업 및 가계 부실우려로 투자가들의 위험회피도는 상당기간 높은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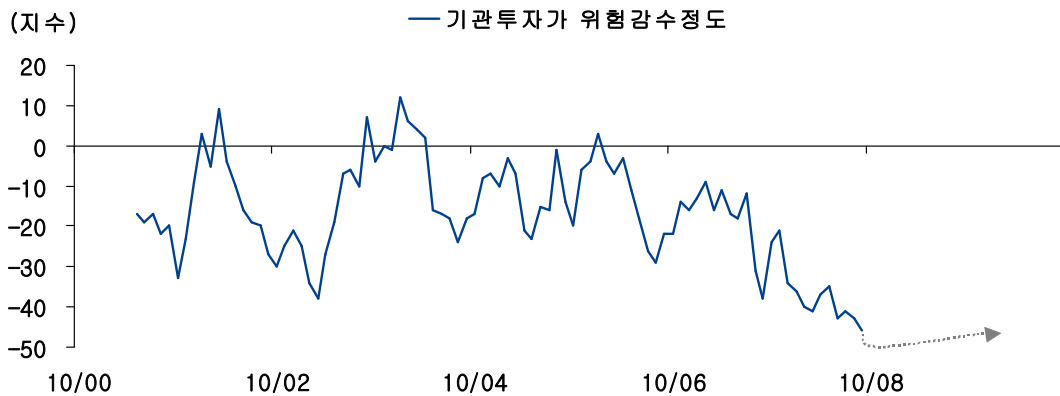
글로벌 자금시장 유동성경색 극단적인 수준에서 완화 중



자료 : IMF, 현대증권.

참고 : 자금조달 및 시장유동성 지수 -미국채와 리보금리차, 리보금리 기간 금리차, 통화매수매수 호가차이, 증시 수익률과 거래량 비율을 조합.

투자자산 시장의 기관투자가 위험회피도 낮은 상태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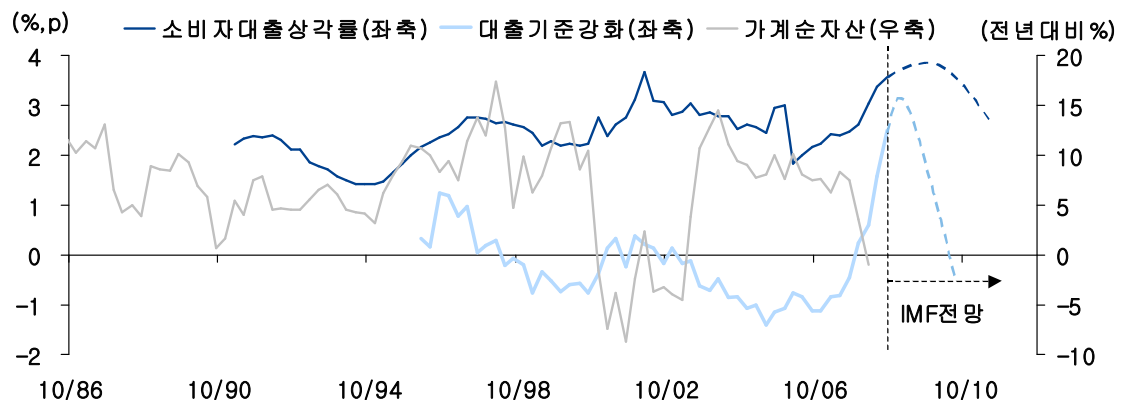
자료 : IMF, 현대증권.

참고 : 글로벌 펀드매니저의 위험자산 선호정도를 벤치마크대비 높은 정도를 표시.

○ 가계 신용도 악화전망

- 아래 그림은 미국 가계의 순자산 감소추세와 강화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과 소비자대출 상각률 추이와 전망치를 나타낸 것임
- 금융 및 실물자산 가치의 급락세가 가계 부채 가치 하락을 압도하며 순자산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더하여 산용경색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의 소비자대출에 대한 상각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금융기관의 소비자대출 레버리지 축소 지속 전망



자료 : IMF, Thomson Datastream..

참고: 1) 소비자대출 상각률: 미국 상업은행 소비자대출자산 중 상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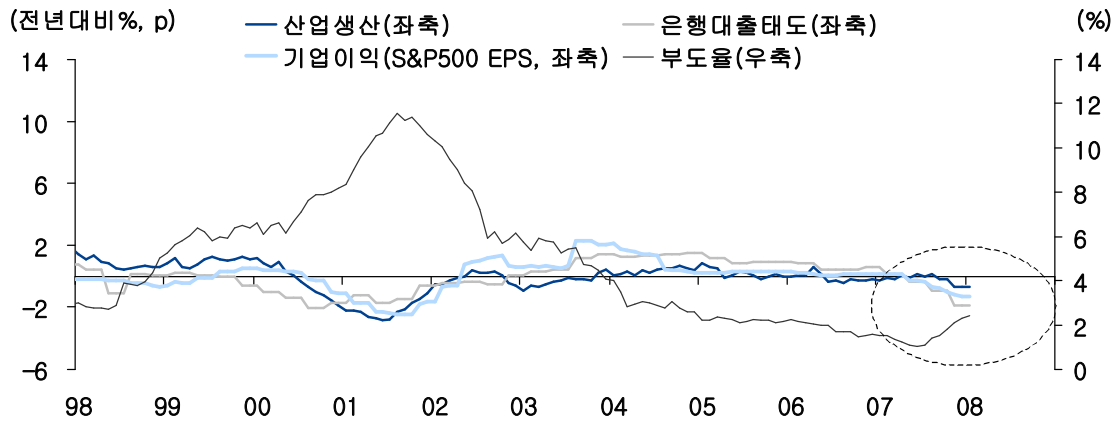
2) 대출기준 강화: 미 상업은행 소비자대출기준에 대한 표준화지수.

3) 가계순자산: 미 가계의 실물 및 금융자산에서 순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 이익 감소와 기업 부도율 상승으로 기업대출 레버리지 축소 지속 전망

- 아래 그림은 둔화되고 있는 글로벌 실물경제와, 악화되고 있는 은행 대출태도와, 감소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이익 둔화세, 그리고 이제 막 바닥에서 벗어나 급증하고 있는 기업 부도율을 나타낸 것임
 - 금융기관의 기업대출(Commercial & Industrial Loan)의 연체와 상각률 증가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경기침체에 기인한 기업부문 부실도 금융기관 레버리지 축소 요인



자료 : IMF, Moody's, Thomson Datastream, 현대증권.

- 참고: 1) 산업생산: OECD의 산업생산 증가율.
 2) 은행대출태도: IMF 설문조사 통한 표준화지수.
 3) 기업이익: S&P500이익증가율 표준화지수.
 4) 부도율: 미국기업 부도율.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1.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의해 국내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2008년 9월말 자기자본비율은 10.79%로 2008년 6월말보다 0.57%p 하락
 -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은 2008년 들어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대내외 시장여건 악화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말 기준으로, 전분기대비 6.4조 원 감소
 - 국내 은행 부실채권 비율 : 2008년 9월말 0.81%로 6월말 대비 0.11%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5년말 1.22%에 비해 안정된 상황임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및 부실채권 추이

(%)

| | ' 06말 | ' 07말 | ' 08.3말* | ' 08.6말* | ' 08.9말* |
|-----------|-------|-------|----------|----------|----------|
| BIS자기자본비율 | 12.75 | 12.31 | 11.20 | 11.36 | 10.79 |
| 부실채권 비율 | 1.22 | 0.84 | 0.72 | 0.70 | 0.81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 바젤II 기준.

-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감소 : 2008년 1~9월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4조원으로 전년동기(13.2조원) 대비 4.8조원(36.2%) 감소
 - 이는 전년동기에 특별히 발생된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세후 3.2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1.6조원(15.7%) 감소한 수준임
 -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부실여신 증가 등으로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2.2조원, 2.5조원→4.7조원)했기 때문임
 -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기타충당금 등으로 구성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 | '06년 | '07년 | 1~9월(A)* | | '08년 1~9월(B) | 증감(B-A)* |
|------|------|------|----------|--------|-----------------|-------------|
| | | | | | | |
| 국내은행 | 13.6 | 15.0 | 13.2 | (10.0) | 8.4 | △4.8 (△1.6) |
| 일반은행 | 9.0 | 10.2 | 8.6 | (7.0) | 6.5 | △2.1 (△0.6) |
| 시중은행 | 8.3 | 9.4 | 7.8 | (6.3) | 5.7 | △2.1 (△0.6) |
| 지방은행 | 0.7 | 0.8 | 0.7 | (0.7) | 0.8 | 0.0 (0.0) |
| 특수은행 | 4.6 | 4.8 | 4.6 | (2.9) | 1.9 | △2.7 (△1.0) |

* ()내는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 제외시.

○ 한편, 한국 국가 평가와 금융회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 피치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제 2금융권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춤
 -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10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
 - 11일 산업, 기업, 수출입,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부산, 경남, 광주 은행과 농협, 우리금융지주의 등급 전망을 내림
 - 우리투자, 한국투자, 대우캐피탈, 현대카드의 제 2금융권의 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
- 하향 조정 배경 : 글로벌 경제 부진 속에서 은행의 유동성 부족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하향 조정의 배경임
 - 건설업과 중소기업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피치(Fitch)사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

| 구 분 | 신용등급 | 신용등급 전망 | 평가일 |
|------------|------|---------|--------|
| 한국 국가 신용등급 | A+ | 안정적→부정적 | 11월10일 |
| 한국수출은행 외 | - | 안정적→부정적 | 11월11일 |
| 우리투자증권 외 | - | 안정적→부정적 | 11월11일 |

-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살펴본 후, 향후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과제를 도출함

2. 금융기관 건전성 결정 요인

1) 긍정적 요인

① 낮은 금융기관 연체율

○ 금융기관 중 국내은행 연체율은 높지 않고, 부문별로 보았을 때에도 기업 및 가계 연체율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체율 증가 미미 : 국내은행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0.97%로 6월말대비 0.18%p 상승하였으나, 2003년말 2.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말 1.02%에서 9월말 1.30%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8%로 소폭 상승에 그쳤고 1998년말과 2003년말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되고 있음
 -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3.64%로 2007년말 2.55%에서 1%p 이상 상승하여 국내은행의 0.97%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 PF 대출 연체율 안정 : 한편, 은행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말 0.68%로 은행의 9월 연체율인 0.97%보다도 0.29%p 낮게 나타나 PF 대출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음

국내은행 부문별 연체율 추이

(%)

| | 1998 | 2003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3월말 | 6월말 | 9월말p |
| 연체 비율 | - | 2.0 | 1.24 | 0.84 | 0.74 | 0.91 | 0.79 | 0.97 |
| 기업대출 | 8.0 | 1.9 | 1.34 | 1.00 | 0.92 | 1.16 | 1.02 | 1.30 |
| 대기업 | - | 0.6 | 0.09 | 0.49 | 0.37 | 0.36 | 0.30 | 0.31 |
| 중소기업 | - | 2.1 | 1.55 | 1.07 | 1.00 | 1.29 | 1.14 | 1.50 |
| 가계대출 | 7.9 | 1.8 | 1.12 | 0.70 | 0.55 | 0.63 | 0.52 | 0.58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PF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

| | 2006년말 | 2007년말 | 2008년 3월말 | 2008년 6월말 |
|----------------|--------|--------|-----------|-----------|
| PF대출 잔액(조원) | 25.9 | 41.8 | 44.0 | 47.9 |
| 연체율(%) | 0.23 | 0.48 | 0.86 | 0.68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중소기업 부실채권 증가율 소폭 상승** :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1.06%에서 1.33%로 증가세가 가계 여신 증가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2003년 2.24%에 비하면 약 1%p 가까이 양호하다고 판단됨
- **낮은 가계 여신 부실비율** : 가계여신은 2008년 9월말 0.53%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보다도 가계 여신 부실비율이 낮음
 - 가계여신 중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의 경우, 2008년 9월말 0.40%에 그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부실이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음

국내은행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추이

(%)

| | 1998 | 2003 | 2005 | 2006 | 2007 | 2008 | | |
|----------|------|------|------|------|------|------|------|------|
| | | | | | | 3월말 | 6월말 | 9월말 |
| 기업 여신 | - | 2.70 | 1.31 | 0.91 | 0.80 | 0.88 | 0.78 | 0.92 |
| (중소기업) | - | 2.24 | 1.68 | 1.12 | 0.99 | 1.13 | 1.06 | 1.33 |
| 가계 여신 | - | 1.76 | 0.98 | 0.68 | 0.54 | 0.58 | 0.50 | 0.53 |
| (주택담보대출) | - | - | - | - | 0.44 | 0.46 | 0.38 | 0.40 |
| 신용카드 채권 | - | 2.63 | 1.22 | 0.84 | 0.96 | 1.01 | 0.99 | 1.10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② 금융기관의 예대율 양호

○ 예대율의 기준인 100%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미국보다 낮음

- **안정적인 예대율** : 금융기관의 원화예수금 대비 대출을 나타내는 예대율의 경우, 원화예수금 중 CD를 포함하면 2008년 9월말 103.2%로 안정 기준인 100%보다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아 불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미국보다 낮은 수치** : 국내 금융기관 예대율은 일본(CD를 포함)의 74%보다는 높지만, 미국(CD 포함)의 112%보다 약 10%p 이상 낮은 수치임

일반은행의 예대율 및 무수익여신비율 추이

(%)

| | 1998말 | 2003말 | 2005말 | 2006말 | 2007말 | 2008 | | |
|-------------------------------|-------|-------|-------|-------|-------|-------|-------|------------------|
| | | | | | | 3월말 | 6월말 | 9월말 ^p |
| 예대율 (원화대출금/(원 화예수금+CD)) | - | 88.1 | 91.1 | 95.6 | 104.4 | 104.8 | 104.2 | 103.2 |

자료 : 금융감독원.

③ 무수익 여신비율 하락세

○ 무수익 여신비율은 2003년말 카드대란보다 매우 낮은 수치

- 낮은 무수익여신 비율 : 일반은행의 3개월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한 무수익여신(NPL, Non-Perfoming Loan)비율은 2008년 6월말 0.6%로 2008년 3월말 0.7%에서 하락하여 부실 정도는 하락
 - 또한 2008년 6월말 무수익여신비율은 1998년말 7.4% 뿐 아니라 2003년말 2.2%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임
 -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경우도, 2008년 3월말 0.8%, 6월말 0.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은행의 손실이 미약한 상황임
 - 그러나 저축은행의 2008년 9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93%로 2008년 6월말 9.37%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 부실이 저축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 추이

(%)

| | 1998말 | 2003말 | 2005말 | 2006말 | 2007말 | 2008 | | |
|---------|-------|-------|-------|-------|-------|------|-----|------------------|
| | | | | | | 3월말 | 6월말 | 9월말 ^p |
| 무수익여신비율 | 7.4 | 2.2 | 1.1 | 0.8 | 0.6 | 0.7 | 0.6 | - |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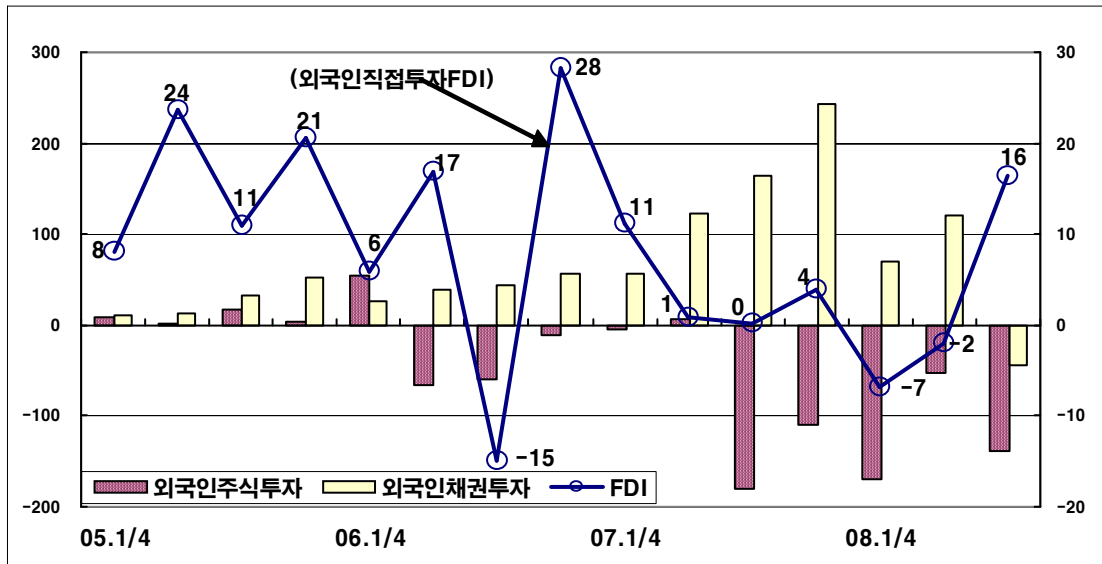
④ 외국인직접투자 반전

○ 외국인직접투자가 2008년 3/4분기에서 플러스로 전환

- 외국인직접투자 반전 : 외국인주식투자가 2007년 3/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초로 전환된 것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1/4분기 7억 달러 유출에서 2008년 3/4분기 16억 달러 유입을 기록

외국인 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Ecos.

⑤ 정책적 노력 강화

○ 은행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연체율 악화를 방지

- 우선, 금융위원회가 원화유동성비율 기준을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 및 부채에서 1개월로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은행권의 자금 여유가 발생
- 한미 통화 스왑 200억 달러 체결과 은행의 대외채무 보증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 환경은 개선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를 막도록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부도 사태 대비

-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 한국은행과 정부는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수출입금융에 공급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2.5조 원 증액
 - 산은, 기은 등의 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및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확대
 - 중소기업은행 현물출자 통해 중소기업 대출여력 확충
- 특히 PF 대출 관련 건설사의 부실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하여 건설사 구제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주단 협약 구성

유동성 지원 정책

| | 정책 |
|--------------|--|
| 은행 유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유동성) 긴급 원화유동성 공급(RP거래 규모 확대) 및 규제완화 - (외화유동성) 한미간 300억 달러 통화 스왑라인 체결 3년간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정부 보증 1,000억 달러 |
| 중소기업 대출 유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과 정부는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수출입금융에 공급 - 총액대출한도 2.5조 원 확대 및 금리 1%p 인하 - 산은, 기은(1조 원 증자) 등 국책은행의 자금지원 확대 -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확대 - 중소기업은행 현물출자 통해 중소기업 대출여력 확충 |
| PF 대출 건설사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유동성 부족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 협약 -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외 |
| 개인 부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 대출만기 연장, 근로자와 서민주택자금 지원 외 |

○ 개인 부채 상환 능력 약화에 대비 정부는 기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대출 금리 부담을 축소시킴

- 한국은행은 10월 27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75% 인하하여 4.25%가 되었으며 11월 7일 금통위에서 0.25% 추가 인하
 - 이에 따라 6% 초반이었던 CD 금리가 하락하여 11월 14일 5.56%를 기록
 -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가계 부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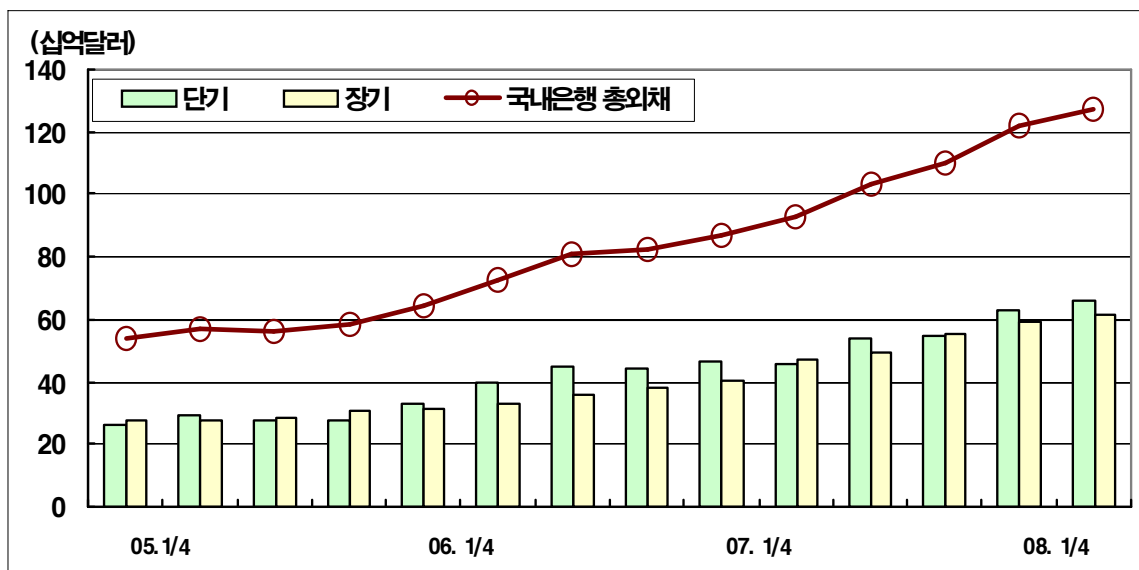
2) 부정적 요인

① 국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외채 증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수출기업 선물환매도 및 재정거래차익을 위한 달러화 차입 급증 : 특히 2006~7년 원화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 기업 등의 선물환매도 증가에 따른 외환 포지션 조정과 재정거래 차익을 위한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이 급증
 - 국내은행의 외채 규모는 2004년 말 505.7억 달러에서 2008년 2/4분기에는 1,273.9억 달러로 151.9%나 상승
 - 동 기간 국내은행의 장기외채는 271.2억 달러에서 613.7억 달러로 126.3% 증가하였고, 단기외채는 234억 달러에서 660.1억 달러로 181.5%나 증가한 가운데 2006년 2분기부터 단기외채가 장기외채보다 많아졌음
 - 한편, 2008년 10~12월까지 국내 은행이 상환해야 하는 외화 차입금은 223억 8,000만 달러로 추정

국내은행의 장·단기 외채 규모



자료 :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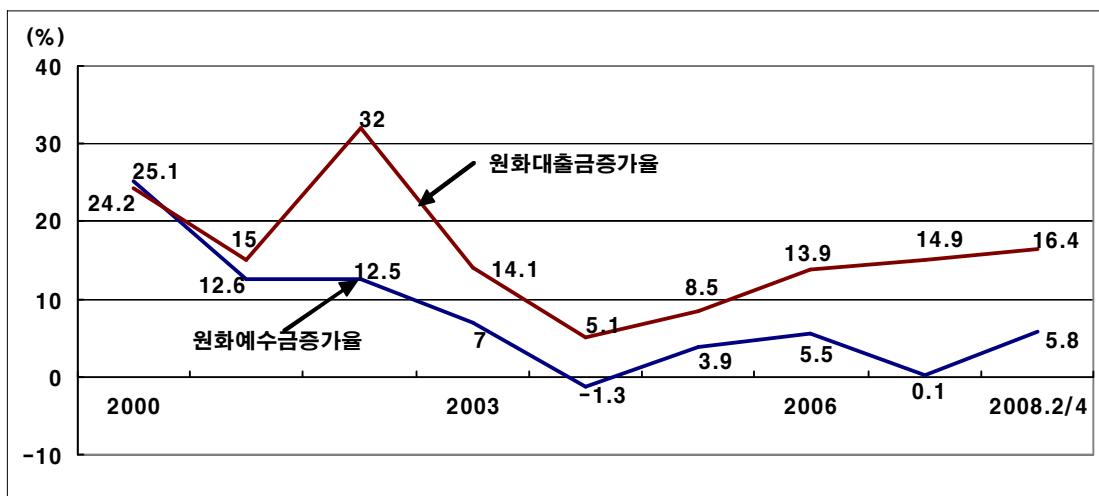
② 금융기관의 외형 확대 경쟁 심화

○ 은행이 고원가성 자금 조달에 의존하여 수익성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형 확대를 위한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됨

-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 은행 수신의 고원가성 자금을 위한 의존이 높아짐
 -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확대로 은행으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가 확대되었으나, 은행의 수신은 여전히 특판예금과 시장성 수신 등 고원가성에 집중됨
 - 예금은행의 저원가성 자금조달원인 수시입출식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말 28.9%에서 2008년 10월말 잔액 기준으로 25.9%로 약 3%p 급감
 - 반면, 금리가 높은 고금리 특판예금의 확대로 정기예금은 33.9%에서 36.9%로 약 3%p 급증하였고, 시장성 수신도 CD 및 은행채 발행증가로 32.2%에서 32.5%로 0.3%p 소폭 증가

- 외형확대를 위한 대출 급증 : 2006년 이후, 원화대출금증가율이 원화예수금증가율보다 10%p 이상 급증
 - 원화대출금증가율은 2004년 전년동기대비 5.1%에서 2007년 14.9%로 확대되었고 2008년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함
 - 반면, 원화예수금증가율은 2004년 전년동기대비 -1.3%로 감소하였고, 2007년에는 0.1% 증가에 그쳤으나 2008년 들어 예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

예금은행의 예수금증가율과 대출금증가율



자료 : 금융감독원.

-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위험 상승** : 국내은행의 중장기적인 유동성위험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순현금자본포지션*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순현금자본포지션은 5.7%로 전년말(9.2%) 대비 3.5%p 낮아졌고, 2005년 말(16.1%) 대비로는 10.4%p 급락
 - 이는, 은행의 수신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성 정기예금과 특판예금에 주로 의존하나 대출은 중장기로 이루어지며 은행의 여수신간 만기 미스매칭이 확대된 것에 기인함
 - * 순현금자본포지션(net cash capital position)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으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간주됨
- **위험가중자산 증가** : 한편, 환율 상승에 따라 시장위험성이 증가하며 위험가중자산이 전분기대비 4조 원 증가함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 규모

(단위: 조 원, %)

| | 2006 | | | | 2007 | | | | 2008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¹⁾ |
| 자기자본 | 107 | 112 | 117 | 119 | 124 | 131 | 135 | 133 | 135 | 136 | 130 |
| 위험가중자산 | 809 | 857 | 897 | 930 | 958 | 1,015 | 1,060 | 1,082 | 1,203 | 1,198 | 1,202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 2008년 3/4분기 말 자료는 금융감독원 9월말 BIS비율 발표 보도자료 인용 추정치임

* 위험가중자산은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이는 은행들의 우량자산 보유 동기를 높여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③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리스크 확대

- **중소기업 및 가계의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확대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파산 리스크가 증가됨**
- **중소기업 및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인 확대** :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의 비중이 2005년 이후 크게 확대됨
 -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4%에서 2008년 2/4분기 말 42.5%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

-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 25.9%에서 2006년 27.5%까지 확대되다가 2008년 2/4분기 말 24.1%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잔액 규모로는 116조원에서 152조원으로 36조원 증가함

- **중소기업의 차입금 의존도 확대** : 2007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입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상승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 말 43.65%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129.08%로 2002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짐
 -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확대전략과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차입금의존도는 2007년 말 32.0%로 전년말대비 1.08%p 상승하였음

중소기업(제조업)의 재무구조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자기자본 비율 | 대기업 | 30.81 | 33.15 | 43.69 | 46.84 | 52.17 | 53.73 | 53.91 | 53.98 |
| | 중소기업 | 35.75 | 40.86 | 39.67 | 40.39 | 41.9 | 41.51 | 42.99 | 43.65 |
| 부채비율 | 대기업 | 224.59 | 201.63 | 128.88 | 113.49 | 91.68 | 86.13 | 85.49 | 85.25 |
| | 중소기업 | 179.71 | 144.74 | 152.08 | 147.57 | 138.65 | 140.9 | 132.59 | 129.08 |
| 차입금 의존도 | 대기업 | 43.64 | 41.96 | 31.2 | 25.85 | 20.41 | 19.08 | 18.13 | 18.03 |
| | 중소기업 | 35.04 | 34.55 | 32.89 | 33.46 | 31.92 | 30.79 | 30.92 | 32.0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저하 지속** : 가계부채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계속 악화
 - 금융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금융부채대비 자산 비율이 2007년말 231%에서 2008년 6월말 기준 222%로 9%p 하락함
 - 가계의 가용소득에 따른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와 이자지급 비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전년말대비 각각 5%p와 0.4%p 상승한 153%와 9.8%를 기록
 - 아울러,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도 가처분소득 감소와 이자지급 비용 상승으로 2005년 15.3%에서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20.7%로 5.4%p 급등함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지표

| | 2005 | 2006 | 2007 | 2008.6월말 |
|--------------------|------|------|------|----------|
| 금융자산/금융부채 | 233 | 227 | 231 | 222 |
| 금융부채/ 개인가처분소득 | 135 | 143 | 148 | 153 |
| 개인이자지급/ 개인가처분소득 | 7.8 | 9.3 | 9.4 | 9.8 |
| 원리금상환부담률(DSR) | 15.3 | 19.3 | 20.2 | 20.7 |
| 이자지급액/연간소득 | 10.2 | 12.0 | 13.2 | 13.1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08.10).

주 : 2008년 6월말 기준 개인가처분소득은 한국은행 추정치를 적용한 것임.

- **파산리스크 증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은행의 대출부실 증가로 연결되어 파산 증가 및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음
 - 2008년 11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조사) 전망치는 68로 2003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함
 -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4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8만 9,049 건에 달함

개인파산 신청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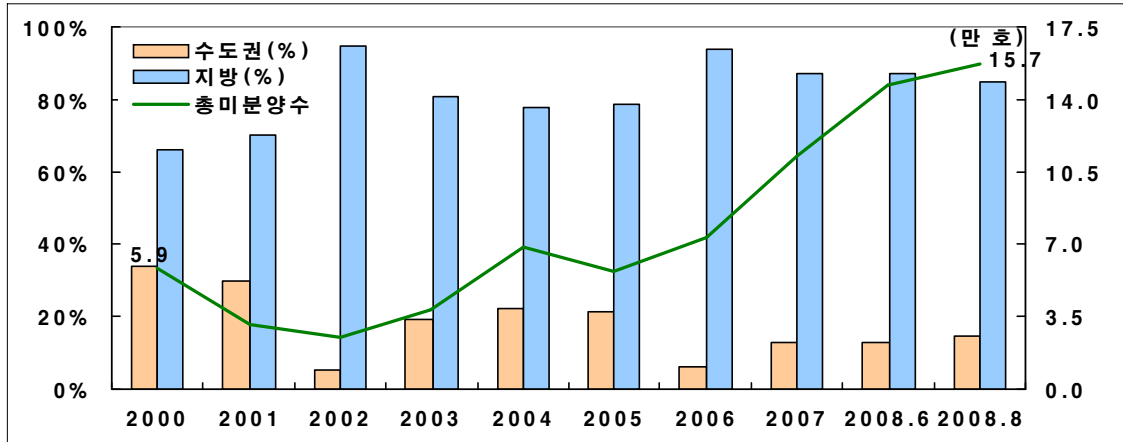
| 년 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9 |
|-----|------|------|-------|-------|--------|--------|---------|---------|--------|
| 건 수 | 329 | 672 | 1,335 | 3,856 | 12,300 | 38,773 | 123,691 | 154,039 | 89,049 |

자료 : 대법원.

④ 건설업 및 조선업 등 부실 위험 증가

-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며 건설업과 조선업 부실이 은행권의 자본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 **미분양 주택 급증 :** 최근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전년말 대비 대폭 증가
 - 2007년말 미분양주택은 전국 11만 2,254 가구에서 2008년 8월 현재 15만 7,291 가구로 8개월 만에 4만 5,037가구가 증가
 -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실질 미분양주택은 공식통계보다 10만 가구나 많은 약 25만 가구이며 금액으로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음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2008년 8월 미분양 현황」, 2008년 10월 29일.

- 높은 건설사 부채비율 :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상승
 - 2008년 1~10월 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441개사로 전년동기대비 46개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10월에는 65개로 전월대비 16개 급증
 -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업체 가운데 10개사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200위 업체 가운데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41개 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189%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PF 우발채무를 감안한 부채비율은 429%로 급등하는 것으로 알려짐¹⁾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업체 부채비율

| 구분 | 100% 미만 | 100~200% 미만 | 200~300% 미만 | 300% 이상 |
|-----|---------|-------------|-------------|---------|
| 업체수 | 4 | 16 | 7 | 3 |

자료 : 2008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 높은 저축은행 연체율 :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 사태와 관련 중소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8년 6월말 저축은행의 PF 대출금은 12.2조 원이고 PF 대출 연체율은 14.3%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우려가 되고 있음
 -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2008년 6월말 약 50조 원으로 이중 PF대출은 약 12조 원으로 대출금 중 비중은 24%에 달함

1) 굿모닝 신한증권, 건설부문 분석, 2998년 11월 18일 참조.

- **조선업종 시설 자금 대출 우려** : 은행들은 조선업종이 호황을 보이는 동안 대규모 시설 자금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중소형 조선사들이 부실화되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임
 - 은행들은 중소형 조선사들에게 선수금환금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조선사들이 부도나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것임

⑤ 외국인 주식투자 유출 증대

○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2008년 내내 지속되고 있어 환율 급등과 국내 외화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음

-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는 미국 신용위기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보와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함
 -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미국 모기지 부실로 인해 자금 수급의 문제에 직면하자 현금 확보를 위해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본국으로 송금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과 경상수지 악화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경제 구조로 인해 국내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며 불안감 확산
- **주식 매도세 2008년 지속** :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국내 원·외화 유동성 문제가 대두되며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는 2008년 내내 지속되고 있음
 - 2008년 1~11월 21일까지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46조 2,62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7년의 27조 2,000억 원보다 19조 원 이상 증가
 -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말 32.4%에서 2008년 11월 14일 기준 29.0%로 낮아지면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외국인 순매도 급증의 영향으로 2007년 말 1,897.13p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2008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전년말대비 47.1%이상 급락

주가 및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

| 구분 | 2007년 | 2008년 | | | | |
|----------------|---------|---------|---------|--------|--------|-------------|
| | | 1/4 | 2/4 | 3/4 | 10월 | '08.1-11/21 |
| KOSPI | 1,897.1 | 1,703.9 | 1,674.9 | 1448.1 | 1113.1 | 1,003.71) |
| 외국인 순매수(조원) | -27.2 | -16.1 | -7.4 | -12.8 | -4.9 | -46.3 |
| 외국인 보유비중(%) | 32.4 | 30.4 | 30.7 | 29.6 | 30.2 | 29.0 |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증권거래소.

주 : 1) 11월 21일 코스피 마감지수임.

2) KOSPI와 외국인 보유비중은 말일 자료임.

3)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누적액, 마이너스는 순매도 규모를 의미함.

4. 향후 전망과 선제적 대응 과제

1) 향후 건전성 악화 요인 증가

- 현재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는 있지 않으나,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
 - 미국(-0.7%), 일본(-0.2%), 유로지역(-0.5%) 등 선진국 경기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인도, 아세안-5 등 주요 개도국 경제도 하향 조정
 -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 지속으로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진다면, 수출입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발생할 것임
 - 이러한 금융불안 상황으로 인해 기업 및 가계 대출 리스크가 높아진다면, 은행기관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물경제 침체로 기업들의 부도가 증가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것임
 -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임
 - 부실채권 증가로 이미 하락 추세인 BIS 비율은 물론, 무이자수익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가 되면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은 감소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내부 요인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2) 선제적 대응 과제

- 첫째, 패스트 트랙 제도와 같이 기존 수립해 놓은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및 가계 부도 증가는 일반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므로 정부 종합 대책에서 수립한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임
 - 특히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우량 기업으로 분류되면,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야 함
 -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할 것임
 -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실시를 지속함으로써 가계 및 중소기업들의 채무 부담감을 줄여야 함
 - 또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신용에 의한 대출이 가능한 크레딧뷰로(CB, Credit Bureau)와 같은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셋째, 수요 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저축은행 및 가계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저축은행과 부동산 PF관련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하락 유도과 구입 가계들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

- 넷째, 체계적인 플랜을 통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함
 - 은행 자율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기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

- 다섯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 기구의 철저한 리스크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은행들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현재 금융기관 회계 기준에는 시장 위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산위험 등을 포함시켜 부실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임

메 모

 **현대증권**  **現代經濟研究院**

금융빅뱅 인사이트 | 08-20(통권29호)